

相佰 金元龍 黃壽永 委員

◎ 宜寧서 金銅如來立像發見

三月一日 同郡 鳳樹面 西岩里 강우술씨 宅에서 嚴弼燮氏(50)가 發見(높이 十二·五cm 重一七〇g) 九日 慶南教育委에 引繼되었다. 蓮花臺를 갖고 保存이 完全하다.

◎ 慶州서 石室古墳發見

三月八日 同市 皇南동 一三四 李錫南(50女)씨 宅에서 竅穴式石室古墳(南北 길이 四m 幅一·四m 높이一·八m)이 發見되었는데 出土品은 圓底無紋壺三、 平底無紋壺二點 臺付有蓋壺一點이라하며 이 地點은 味鄒王陵으로부터 西南一 五〇m가 된다.

◎ 瑞典에서 韓國陶磁展開催

二月 九일부터 四月 三〇일까지 瑞典 「스톡홀름」極東美術館에서 開催된 이 展示會는 新羅、高麗、李朝 等 百餘點의 陶磁器와 德壽宮美術館出品 繪畫四點、 靑瓷三點 國立博物館出品 粉靑磁器一點 李朝白磁一點이 包含되었는 바 이것은 北歐 最初의 일로서 好評을 받고 있다고 한다.

鶴林正의 山水人物帖

— 第七卷 第四號 通卷六十九號 —

崔 淳 雨

鶴林正 李慶胤의 枯淡高古한 畫品에 對해서는 聽竹畫史①나 燃藜室別集等②에 適評이 傳해져 있고 또 二의 逸品片畫들이 간혹 있어서 그의 畫格이나 人品은 一瞥부터 文人墨客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盛名에 비하면 그의 遺作은 傳해진 것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自身이 본 것은 이제까지 겨우 손꼽을 정도에 불과했다. 이번 우연히 魯錫徑氏의 好意로 자세히 辨機會를 갖게된 이 鶴林正帖은 원래 潭陽의 어느 舊家에서 傳世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鶴林正과 同年

代의 人物인 簡易 崔笠③이 쓴 畫題가 있어 이 그림들의 由來와 이것이 鶴林正의 手蹟임을 밝히고 있다.

이 畫帖은 古色이 蒼然한 菱花文章紙表紙로된 四三·五cm X 三七cm 크기의 畫冊으로서 表紙와 아울러 모두 二十四面、그 중 二十二面에 小品 畫幅이 하나씩 들어있고 이 畫幅들의 차례는 모두 罨은 紺紙로 表裝되어 있어서 그 古格을 짐작할 수 있다. 이 表紙에는 「傳家之寶」라고한 篆 書題僉이 있고 第一面(表紙 뒷면)과 第二面에는 麻紗本에 그린 水墨人物 畫(二一·五cm X 二三cm)二幅을 卷頭로 삼고 있는데 이 卷頭 첫 그림에 이 그림들의 由來를 밝힌 다음과 같은 崔笠의 跋文이 쓰여져 있다.

我國名畫多出宗英目今如石陽正梅竹鶴林守昆季水石亦殊絕者也洪斯文自北來多得鶴林散畫於流落中持以示余索題該觀其府人物尤逼真要皆非凡俗風骨也余不曾兒鶴林公或者此中有不覺自肖其狀者耶

萬曆戊戌冬 崔立之 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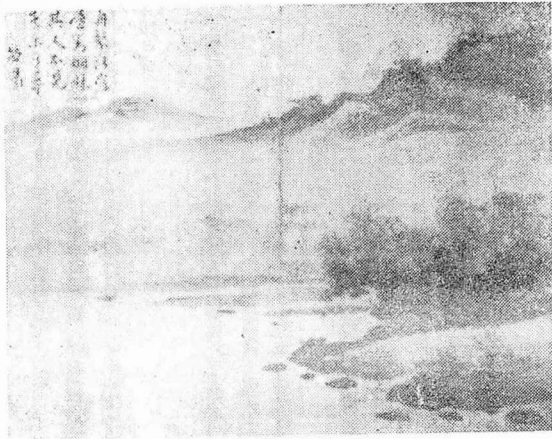
以上の 內容으로 보면 이 그림들은 洪斯文④이라는 사람이 方文에 서 돌아올 때 流落中에 얻은 鶴林正의 散畫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自己(崔笠)에게 보여주고 畫題를 請했다는 뜻인 듯하며 아울러 그 人物畫의 畵意가 非凡하고 俗氣가 없어서 일찌기 자기가 鶴林正을 만나본 일은 없



지만 이 人物 그림들 속에는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려진 鶴林正自身的 모습이 섞여 있을는 지도 모른다는 뜻이 表現되어 있다.

萬曆戊戌年 겨울 이라 하면 宣祖三十一年(一五九八) 겨울로서 그때는 丁酉의

倭敵再侵以來 바야흐로 窮境에 빠저버린 倭軍들이 十一月에 蔚山 泗川 順天等地에서 撤軍했고 또 李舜臣將軍은 露梁에서 이 倭軍들의 退路를 막아 憤戰하다가 戰死할 무렵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겨울에 倭軍은 모조리 우리 國土에서 물러났던 것이다. 洪斯文이 簡易 崔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崔笠은 畫題內容을 보아 湖南이나 嶺南에 머무르던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 畫冊이 潭陽의 어느 舊家에서 傳世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짐작한다면 當時 倭軍이 물러나간 湖南地方으로 南下해온 洪斯文이 역시 이 地方에서 崔笠을 만났었던 것이 아닐가 한다. 어쨌든 流落中에 北方에서 얻은 鶴林正의 散書들이 湖南에서 傳世된 緣由를 알만하다고 하겠다.



다음 第三面으로부터 六面까지 四面에는 各其 紙本에 그려진 水墨人物山水 그다음 第七面과 八面은 紙本에 그린 養松堂 金禔의 水墨 山水 畫風을 방불케 하는 夏景山水 九面에는 다시 紙本에 그린 水墨 人物山水가 드러있는데 第一面으로부터 九面까지의 그림에 各其 짚고진 崔笠의 畫題들이 쓰여 있어서 鶴林正의 그림임을 인정하고 있다. 第三面부터 九面까지의 그림은 同一한 紙質에 그려진 같은 크기(26 cm × 33 cm)의 그림들이며 또 이 그림들의 한가운데에 절반으로 접했던 자국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 七幅의 그림들은 元來 같은 畫帖에서 떼여내서 이 畫帖에 다른 것과 아울러 表裝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以上 九幅의 그림은 모두 같은 솜씨를 보인 作品으로서 거의 設彩를 인정하기 힘든 水墨主調의 그림이며 全盤 弼柯 韻에 있는 走馬圖, 高士彈琴圖 그리고 國立博物館所藏의 南宋 院體 風의 樹下濯足圖, 觀瀑圖, (朝鮮古蹟圖譜十四卷五八八七, 五八八八)의 솜씨와 방불한 筆意를 보이고 있다. 以上 崔笠題畫의 九面外에 第十面으로부터 十三面까지의 四面은 絹本에 그려진 金泥山水(25·5 cm × 23·3 cm)로서 李朝 그림에서 가장 가까운 系譜를 찾자면 아마 鶴林正의 子요 또 뒤어난 翰墨之士인 虛舟 李澄의 그림에 가장 방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金泥山水들에는 아무 款識도 없으나 이것이 虛舟의 作品일 경우와 또 鶴林正 自身의 作品일 경우가想定되지만 이것을 어느 것으로도 確認할만한 資料는 없다.

以上에 이어 第十四面으로부터 二十一面까지에는 水墨山水, 山水人物 또는 翎毛 등의 그림들이 있으나 勿論 여기에는 崔笠의 畫題가 없을 뿐만 아니라 卷頭로부터 九面의 그림들에는 그 筆意가 미치지 못하고 異質的인 表現技法을 보이고 있으며 末尾面인 二十二面(뒷표紙안)에는 다음과 같은 古文書 一面이 결드려져 있다.

兵曹

今九月二十七日入直哨官分所

金振濂 金

辛大謙 卍

이 金과 辛이란 人物들이 누구인지 알 資料가 없으며 第一面初頭下部에는 큰 陰刻方印 하나가 찍혀있으나 判讀할 수는 없다.

以上 이 畫冊을 概觀한 바로는 簡易先生 崔笠의 畫題가 들어 있는 卷頭로부터 第九面까지의 그림이 이 畫冊무제의 核心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畫冊이 앞으로 鶴林正研究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資料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崔笠의 書冊跋文과 題畫內容은 그 全部가 崔笠의 文集 簡易堂集(檳城書畫徵所收)에 收錄되어 있는데 다만 檳城書畫徵의

編者が 이것을 拔萃할 때의 錯誤로 보여지는 若干의 漏落과 數字의 誤植이 보일뿐이며 簡易集에 所收된 簡易題詠의 自筆本文이 바로 이 畫冊에 쓰여진 것이었음을 여기에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鶴林正은 仁宗元年乙巳一五四五年生 그의 字는 秀吉 號는 駱坡、駱村 鶴麓이라 하며 青城君 傑의 子로서 그의 子 虛舟과 함께 宗室出身의 父子名畫로서 이름을 떨친 선비였다.

註

① 聽竹畫史——南泰階——鶴林之畫枯淡之中有情趣高古之中有色態十分鍛鍊十分洞洗無一點雞踈氣比金禪有過而無不及

② 燃藜室別集——李肯綯——鶴林正畫品孤高蕭散兼工人物牛馬翎毛而山水則無聞

③ 崔筮——字立之號簡易堂通川人嘉靖己亥生明宗代文科壯元刑曹參判卒年七十四性清高簡貴仁祖朝刊行遺作簡易堂集

④ 洪斯文——名遵字師古號槐陰南陽人司成仁健之子嘉靖丁巳年生宣祖己卯進士一五七九 宣祖二十三年庚寅(一五九〇)及第副承旨工曹參議成川府使等을 歷任

### 鷲棲寺의 塔·像과 石燈

——新羅五岳調查記(其六)——

鄭 永 鎬

지난 二月 二十일부터 一週日間 新羅五岳調查團에서 太白山地區 第二次 調査가 있었는데 筆者도 그 一員이였기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奉化郡의 鷲棲寺를 現存 遺蹟遺物을 中心하여 紹介하고자 한다.

奉化邑內에서 榮州郡 浮石面 行車道로 物野面 北枝里를 지나 皆丹國民學校에서 皆丹一里 洞里 끝까지로 잡아들면 멀리 東쪽으로 文殊山上峰이 보이는데 (標高一、〇六六m) 鷲棲寺는 이 山頂上에 가까운 八五〇m 高地에 位置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寺境에서 奉化、榮州、安東地區가 眼下에 展開되며 東峰을 넘어서면 春陽面과 太白山周圍 諸峰을 밟

리 바라 볼 수 있다. 行路는 邑內에서 東便으로 十二km (皆丹國民學校까지) 徒步로 約八km 溪流를 따라 올라간다. 新羅代의 創建이라는 바 當代의 石造物이 數基 遺存하며 木造建物로는 大雄殿과 山神閣外 寮舍一棟이 있을 뿐 六·二五의 慘禍를 입은 痕跡이 歷歷하다. 寺境에 이르면서 雄大한 石築을 높게 바라 볼 수 있으며 그 위로 石燈과 大雄殿 그 뒤 또한 築臺위에 石塔과 山神閣이 보인다. 圓座의 柱礎石이나 물딩을 刻出한 長臺石은 處處의 層階로 使用되거나 或은 放置되어 있다. 現在 이곳에는 住持一名外에 俗人二名이 從事하고 있을뿐 찾아드는 客들도 別로 없

#### 一、三層石塔

는 閑寂한 곳이라 하겠다.  
原位置라고 하는데 前任住持 崔鶴松(四〇歲)氏의 말에 依하면 「오래前에 破塔이 되어 放置했던 것을 一九五二年(約十四年前) 六·二五事變後 共匪들을 討伐한 뒤라고 한」에 現狀態로 再建한 것이라 한다. 現在는 二層塔身까지 올라 놓았으나 屋蓋石과 露盤들이 落下되어 雪中에 묻혀 있음을 보아 解冬後 塔材를 收拾하면 더욱 原形에 가까운 復原이 可能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現在의 基壇은 中央 撐柱 하나가 刻出되고 兩隅柱가 있는 通式의 上層基壇뿐인데 本來부터 單層基壇이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下基가 破損되어 再建時에 上基만을 세웠는지? 이것도 解氷後의 再調에서 밝혀야 될 것이다. 基壇甲石에는 副椽이 있고 上面에 四分圓의 물딩과 角形받침으로서 塔身을 받고 있다. 各層의 屋身은 一石으로 兩隅柱가 刻出되었으며 屋蓋石의 받침은 四段式이고 上面에 二段式의 角形받침이 있어 그 위 屋身을 받고 있는데 落水面의 傾斜나 轉角의 反轉은 新羅代의 典型的인 曲線美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이 石塔의 建立年代에 對하여는 過去 이 石塔內에서 發見된 舍利石盒①이 現在 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어 이 遺物에 陰刻된 銘文에 依하여 「大 唐咸通八年建」——新羅景文王七年(八六七A、D)에 建立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點에서 이 石塔은 비록 完形이 아닐지라도 建立年代가 뚜렷함에서 各部樣式에 있어 新羅下代의 基準을 들 수 있는 貴重한 遺物